황금연휴 맞은 봉축 키워드 '가족'

주요사찰 가족 참여형 행사 잇달아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랜만에 어머님,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연등도 만들며 가족이 추억을 쌓은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불기 2562년 봉축 주간은 여느 때와 달리 좀 더 특별한 주간으로 펼쳐졌다. 불교신자들이 부처님 오심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린 것이다.

'가족'을 키워드로 진행된 봉축 주간 효과는 컸다. 각 사찰들은 많게는 15%가량 방문객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연등공방'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300여 가족이 참여해 연등을 만들고, 가족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방에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아이들 등 3대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대림동에서 온 김하영 어린이는 "아빠랑 함께 절에 나와 놀아서 기분이 좋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도 직접 공방을 찾아 연등을 만드는 아이들을 격려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신행활동이 펼쳐지길 기원했다.

조계사가 5월 19일 개최한 회화나무합창단 제2회 정기공연에서도 가족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으며, 봉축법요식이 펼쳐진 22일에는 어린이 불교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자리가 별도로 마련됐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은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른바 황금연휴가 이어졌다.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사 사상 첫 가족연등공방
봉은사 유아수계 15% 증가
지역서 가족축제 등도 펼쳐져
"가족 위한 공간도 마련돼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진 제1회 가족연등공방에 참여한 가족의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조계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찰들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체험행사를 통해 가족들을 사찰로 이끌었다. 가정의 달은 맞아 어르신을 위한 효 큰잔치 진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만석승 놀이마당을 봉축기간 사찰에서 개최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룸비니 포토존, 찻자리 등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봉은사 관계자는 "7회를 맞이한 봉축 유아수계법회에 지난해보다 많은 가족이 참여했고, 전통방식을 재현한 다양한 축제 무대에 가족단위 사찰방문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5%가량 방문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속초 신흥사도 19~20일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생활축구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봉축 글짓기와 사생대회를 비롯해 청년부와 같은 연령별 축구대회 등이 열려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았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16일 다문화가족 40여 명을 초청해 문화행사를 열었다. 데일리 템플스테이의 일환으로 △범죄피해교실(양천경찰서) △전통 민화 에코백 칠하기 △연등 소원빌기 등이 진행됐다.

이 같은 사찰의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 및 공간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은 "부처님오신날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사찰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가사노동에 지친 부모불자들이 사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편히 쉴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웃종교계는 이미 놀이방, 키즈카페, 어르신 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자주위원회 설치 종령 공포

조계종, 위원 50인 내외 구성

조계종이 PD수첩 방영 이후 제기된 의혹 해소와 종단 자주권 수호를 위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종령을 5월 16일 공포했다.

종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정을 증명으로 하며,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명예원로 4인, 원로회의 추천 원로의원 4인, 교구본사주지 5인, 중앙종회의원 5인, 선·교·율 분야 대표 각 3인, 비구니 대표 3인, 교역직종무원 4인, 15인 이내 교계중진급 승려, 재가자 대표 5인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 임기는 종령의 효력이 종료하는 날까지다.

한편 종령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필요시 1차에 한해 위원회의 요청으로 종무회의 결의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전○경 씨 친모 "설정 스님 친자 아냐"

조계종, 영상증언 확보 · 언론 공개… PD수첩 의혹 반박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은자 의혹과 관련해 딸로 지목된 전○경 씨의 친모 김○정 씨가 영상증언을 해 눈길을 끈다. 김 씨는 "PD수첩 방영 이후 자신 때문에 설정 스님이 피해를 본다는 걸 알게 돼 죄책감에 시달리다 논란이 허위임을 알리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5월 24일 미국서 김 씨와 종단 관계자가 면담을 하며 촬영한 영상의 녹취를 풀어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5월 7일 이뤄진 것이라고 조계종은 밝혔다.

녹취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경북 모 사찰에 거주하던 중 피치 못할 상황으로 임신하게 됐다. 전○경이 설정 스님 친자는 아니다"며 "속가 가족과 수덕사(원담·설정 스님)와의 인연이 있어 설정 스님에게 입양을 부탁드렸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입양가족과 저의 친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가족관계 등이 엉망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설정 스님을 상대로 친자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을 주선해주신 설정 스님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를 보살펴준 김 모 보살님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줄 것이라고 강하게 조언하셔서 소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이 암 수술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것과 한국에 돌아가면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 확인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심광사 전입신고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씨는 "출가 후 은사스님과 뜻이 맞지 않아 계를 받기 전 고민 끝에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일환으로 사찰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부탁드렸다"면서 "다른 비구스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심광사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1년 전후로 주소지를 다시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김 씨는 "PD수첩을 본 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는 물론 설정 스님께서 저로 인해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몇날 며칠을 괴로워했다"며 "그동안 잊고 지내온 설정 스님에 대한 저의 죄를,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씻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끝으로 PD수첩 방영과 관련해 "본인에 대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로 진실인 듯 보도하며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무시한 처사에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분노 가득한 세상에 연등의 빛을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입니다. 연둣빛 잎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계절입니다. 자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세상에는 분노가 가득차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분노로 인한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취한 택시 승객이 가는 곳을 묻는 노인기사를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최악의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해마다 47~60명이 자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해칠 정도로 분노가 들끓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사물에 집착하여 탐내고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합니다. 분노는 탐욕(貪慾), 성냄(瞋恚 진에), 어리석음(愚癡, 우치), 탐진치 삼독(三毒) 중 성냄에 해당되지만 그 뿌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탐진치 삼독은 팔정도와 계정혜 삼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몸과 입과 마음(身口意)을 청정히 하는 10선업(十善業)으로 삼독의 업 덩어리를 다스리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요, 해탈 열반입니다. 그러나 10악업(十惡業)을 지으면 분노하는 중생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으면 몸으로 짓는 삼업이 청정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속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입으로 짓는 네가지 업이 청정합니다.

무탐(無貪), 무에(無恚, 무치(無癡)하면 마음으로 짓는 삼업이 청정합니다. 이상 10가지 청정한 10선업은 분노는 물론 번뇌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뽑는 실천적 수행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가르침을 풀어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는 양잿물입니다. 화가 나있는 사람의 호흡을 30초 동안 모아 본 결과 실험용 쥐 60마리를 살상할 수 있는 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는 재앙입니다.



제목 · 지극정성-연등공양 그림 · 조향숙

초파일 연등공양 올리며
분노의 어둠 소멸 축원
'몸 입 마음'으로 善 행해야

분노가 올라 올 때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칭명 염불을 하세요.

*부처님오신날이면 불자들은 부처님께 연등(燃燈) 공양을 올리며 소원을 발원합니다. 각양각색의 소원이 있어 오색연등은 지혜와 자비의 빛을 더합니다. 연등의 빛은 탐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비움의 빛이고 아미타 대광명입니다.

올 부처님오신날, 삼천사 신도들은 분노의 어둠이 소멸하기를 발원하는 연등을 밝혔습니다. 분노의 업보를 다스리고, 세상의 분노가 사라지기를 축원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처럼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한 '마음의 연등'을 공양합시다. 이웃과 소통하는 마음의 연등은 분노 가득한 우리 사회를 밝히고 남북통일의 길을 여는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만가지 복이 성취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고귀한 생명나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제24회 생명나눔천도재 (6월 6일 / 불암사)
- 장기기증자 및 순국선열 영가 봉행

제9회 한다솜 희망음악회 (6월 8일 / 동국대일산병원)

• 후원문의 : ☎02)734-8050
• 온라인 후원 : 농협 053-17-001346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